

공부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권 순 재

- 대구 도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4년 재학 중
- 2020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64회 일반행정(전국) 합격자 권순재입니다. 수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수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험 전체를 학교 고시반에서 준비하였으며, 약 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2016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한 다음 2018년 8월에 전역한 뒤 곧바로 고시에 진입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의 절반은 학기를 병행하였지만 2019년 1학기과 2020년 1학기에는 휴학하고 수험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전공은 경제학과입니다. 저의 수기가 수험을 목전에 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I. 제1차시험의 준비과정

1. 개 괄

저는 강의 없이 독학으로 PSAT을 준비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출문

제를 5개년 치 정도 풀며 유형을 파악한 다음, 문제 풀이 스티디를 구하여 다른 년도 기출문제와 강사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PSAT과목의 특성상 지식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므로 이론 없이 접근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들이는 시간 대비 공부 효율이 높지 않은 과목이므로 2~3주 전까지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2차 공부를 하는 등 두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실전 연습을 위해 전국모의고사 역시 5~6번 정도 응시하였습니다.

시간관리의 경우 문제 하나당 소요시간이 아닌 10문제 단위로(10문제 기준 20분 정도) 측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문제마다 체감 난이도가 상이하므로 문제 단위로 시간을 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풀 문제와 풀지 않을 문제를 고르는 방법 역시 기본적으로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였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고르기보다는 남은 시간과 전반적인 난이도를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문제를 위주로 풀었습니다. 다만 자료해석의 경우 이러한 문제 선별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썼었습니다.

2. 언어논리

언어는 본래 제일 자신 있던 과목이었으나, 정작 실전에선 점수 변동이 커 마음고생을 했던 과목입니다. 최근 언어논리 과목의 난이도가 상승세이며, 과거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해 문제에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글을 빨리 읽는 편이라 어려운 문제의 경우 지문을 여러 번 읽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꼭 이런 방식

이 아니더라도 밑줄 긋기, 구조화 등 본인에게 익숙한 독해법을 활용해서도 좋습니다. 또한 논리문제에서 기호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호화가 어려우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역시 기호화를 쓰지 않고(지금도 기호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문제를 천천히 읽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PSAT는 고득점을 받아야만 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유형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에게는 논리 문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연습을 위한 문제 풀이에서는 기출과 강사모강을 풀었었는데, 기출의 경우 2010년 이후 행시 기출문제는 모두 풀었고 강사 모강은 그 해 나온 이나우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진입 당시 가장 어렵게 느껴졌으나, 한 번 점수를 올리고 난 뒤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던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과목과 달리 문제에 대한 해석보다는 '계산'이라는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료해석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인다면 건너뛰고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만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90분 동안 시간 맞춰 모의고사를 푼 뒤에는 문제들을 천천히 다시 풀어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건너뛰는 문제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문제풀이의 정확도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다른 PSAT과목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강사 모의고

사 역시 석치수강사님을 포함한 세 분의 모의 고사를 구해 풀었습니다. 비타민이나 다른 계산연습책을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산연습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상황판단

개인적으로 PSAT의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대비가 까다로운 과목이 상황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퀴즈의 유형이 다채롭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 대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언어논리와 비슷한 전략으로 법조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아낀 시간을 퀴즈문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덕분에 실전에서 합격에 지장 없을 정도의 점수가 나왔으며 모의고사 등에서도 크게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때는 기출문제와 박준범 강사님의 모의고사 문제를 이 년 치 풀었습니다. 퀴즈 문제의 경우 실제 상황을 머리 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경우 쉽게 풀리는 문제가 몇 있습니다. 평소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헌법 및 기타

헌법의 경우 초시 때 김유향 선생님의 핵심 강의를 한 번 들을 것 말고는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는 최대한 많이 구해서 풀어보았습니다.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P/F과목인 이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시든 기출, 모의고사 점수만 꾸준히 나오신다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Ⅲ. 제2차시험의 준비과정

1. 경제학

일반행정 수험생에게도 경제학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과목일 것입니다. 저 역시 경제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그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 전공이 경제학과라 진입 전부터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입 이후에는 황중후 강사님의 순환을 따라가되, 재시 2순환 시즌에는 김진욱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와 별개로 유명하신 세 강사님의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문제풀이 스테디를 구하였으며 스테디원분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들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개념정리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면서도 교과서를 자주 참고하였으며 이러한 공부 습관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교수님께서 쓰신 교과서도 좋지만 베리안저, 핀다이크저 등 외국 교과서들의 경우 식의 도출 등에서 원리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모형들의 기본 가정과 존재 목적 등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답안지 작성에 있어 시간 압박이 덜한 과목입니다. 또한 계산 실수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검산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먼저 초안지에 샤프로 기본적인 계산과 그래프의 모양 등을 확인해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며 다시 계산해 보는 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입니다. 법학과목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고, 공부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그 특유의 논리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강사분의 사례집을 한 권 골라 하루 종일 필사 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권을 다 쓰고 난 뒤에는 어느정도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익숙해 졌으며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 강의는 정선균 강사님의 순환을 따라갔고, 김향기 교수님의 사례집 역시 보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법은 다른 과목 중에서도 특히 답안지 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논점을 모두 적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소 시간을 정해 두시고 답안지 작성 연습을 자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 때 강사 모의고사의 경우 실전보다 배점 측면에서 빠빠한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시간을 아끼기 위해 초안은 키워드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며, 쉬운 쟁점인 경우 곧바로 답안지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행정학

사실 행정학의 경우 제가 수기를 쓸 정도로 학문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 역시 하나의 사례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과목에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단권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학의 경우 합격한 선배의 서브노트를 받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였

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경호 교수님의 순환을 따라갔으며, 수험서 역시 ‘재미있는 행정학’을 90% 이상 활용하였습니다. 답안지를 쓸 때는 문단 안에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근거 내에서 이론과 사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과 역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제가 제일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수험가에는 상대적으로 정치학 공부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과 같이 정치학 과목에서 점수 편차가 크고 점수 상한선도 높은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학은 범위가 방대하고 읽어야 하는 교과서의 수도 많지만 수험생으로서 필요한 지식은 수험서와 강사분들이 나눠주시는 논문집 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김희철 강사님의 순환강의를 따라 들었으며 2순환 기간에만 신희섭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따로 교과서를 챙겨보지는 않았고 김희철 강사님의 펀더멘탈 정치학을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외 신희섭 강사님의 사례집과, ‘정치학 행정고시 기출문제 답안과 강평’, ‘정치학 입법고시 기출문제 답안과 강평’을 참고하여 답안지 작성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구해 시간을 정해 정치학 답안지를 작성한 뒤 돌려보았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학은 소위 말하는 ‘모범답안’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점이 처음 공부하실 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의

논리구조만 확실하게 잡아 두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투자하신다면 합격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차 작성에 크게 시간을 쏟지 않는 편이지만 정치학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생각한 뒤 서론과 결론에 녹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경험상 비교정치 문제의 경우 한국 정치에서의 의의 혹은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정치 문제의 경우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간 입장차이 혹은 실제 상황에서의 처세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장의 근거를 쓸 때도 주장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주장이 가진 당위성(주로 헌법적, 가치적인 근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용성(주로 실제 사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등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논리를 전개하실 때 학자들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시는 것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정당의 제도화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Mainwaring의 논의를 활용하였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Dhal의 관점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5. 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 역시 행정학과 유사하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체계론 수험생이 그렇듯 3순환만을 수강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며 초시 때는 정경호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으며 재시 때는 이상현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보체계론은 모두가 상대적으로 적게 공부하고 적당한 점수

를 받아 가는 것으로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을 선택하실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례 암기에 비중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IV. 수험전반의 Story

많은 합격자분들께서 체력관리 용으로 운동을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목적으로 수험기간 동안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019년에는 월~금까지는 매일 헬스장 오픈 시간인 6시 30분에 친한 형들과 모여 1시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였으며 틈틈이 풀업과 푸쉬업, 크런치 등 맨몸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헬스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맨몸운동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손목 단련을 위해 악력기와 자이로볼을 운동 스케줄에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한 편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 시간을 줄여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의 체력관리 방식이 추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따로 운동 하지 않으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운동에 필요성을 느끼고 하시는 건 좋지만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험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하나의 취미로서는 운동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답안 작성 스터디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 역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것 보다 혼자 공부

하는게 더 도움 된다고 느끼신다면 독학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저의 경우 선배님들의 답안지를 참고하면서 고득점 답안지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았으며, 생소한 쟁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으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생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공부 그 자체 말고는 없습니다. 운동, 취미, 스테디, 연애 등등 공부 외 적인 부분 혹은 공부 방법과 관련된 것들은 필요함을 느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공부방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V. 면접과정

본래 행정고시 면접은 그룹토론, 직무역량, 공직가치와 인성 세 가지 과목으로 진행되나, 제가 합격하였던 2020년에는 그룹토론 없이 두 과목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고시반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2차 합격발표 직후 교내에서 면접 스테디가 꾸려졌으며, 매일 스테디별로 멘토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직무역량은 구체적 상황(군사지역 개발 문제, 아동폭력 문제 등)과 관련 자료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와 딜레마 상황(개발과 보호, 설득방안 등)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표명하는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면접장에서 발표 하게 되는데, 발표가 끝나면 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보고서의 형식에 맞추어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딜레마 문제의 경우에서도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상관없으나 그 선택이 바람직한 공직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직가치와 인성 과목의 경우 공직가치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묻는 문제와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을 묻는 문제가 총 3가지 제시됩니다. 딜레마 문제의 경우 직무역량 문제와 비슷하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고시생들이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경험문제를 걱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쟁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서 모순이 발생하여도 안 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문제 될 것 없습니다.

행정고시 면접은 사기업의 면접과 달리 난이도나 경쟁률 등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행정과 같은 대규모 직렬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VI. 나가며

수험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 내내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시생에게 스트레스란 때 놓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비대해될 경우 공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다 보면 온 사방에서 공부와 관련된 조언을 받게 됩니다. 모두 적당히 무시하시고 필요한 내용만 취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 중에 고시공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몇몇은 매우 무례한 태

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시쳇말로 합격만 하면 장땡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으시되, 너무 힘들면 쉬어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취미를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장기레이스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시생 분들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께서 초시 때는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참가에 의의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

나 그렇게 준비해서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행정고시는 어려운 시험이나 초시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시험에 있어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혹여나 그 해 년도 합격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연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친구들,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